

「李生窺牆傳」에서 문제된 性道德觀念

여 세 주*

I. 서 론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이 창작한 『金鰲新話』의 여러 소설들은 奇異함을 내용으로 하는 傳奇의 형식을 빌려 작가의 의도를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대체로 寓意性이 강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 까닭으로 단편소설집 『금오신화』가 나오고 두 세대가 흐른 뒤, 金安老는 『용천담적기』에서 “이 글은 대개 기이한 것을 기록하여 우의한 것인데, 전등신화를 본받은 것이다.”¹⁾라고 평가하였다. 그 이래 지금까지 『금오신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작품의 寓意性 解讀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논리를 뒷받침할 보다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작가의 삶과 관련시켜 작품의 우의성을 찾는 데만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각 작품의 言表에 내재된 일차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작품의 진실을 오히려 왜곡해 버린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서 특히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과 같이 애정을 소재로 한 소설들에서 이런 문제는 한층 심각하게 대두된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반성적 자세를 전제하면서, 우선 「이생규장전」에 대한 일차적인 의미를 읽어가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즉, 「이생규장전」은 애정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애정 의지에 따른 갈등을 그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愛情小說’이라는 데서 문제의 가닥을 잡아 나가려 하는 것이다. 「이생규장전」이 애정소설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 일차적 의미 읽기에 관심을 가질 때, 이 작품에는 필연적으로 性道德觀念의 문제가 대

* 경주대학교 교수

1) 김안로(1581~1537)가 1522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용천담적기』에서, 『금오신화』를 두고 “其書 大抵述異寓意 效剪燈新話等作也.”(『국역 대동야승 Ⅲ』, 469쪽)라고 평가하고 있다.

두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소설이 성도덕관념과 관련한 애정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이생규장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비약을 피하는 길이며, 이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남은 네 편의 소설도 새롭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성도덕관념이란 말은 성모랄을 우리말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남녀간의 만남과 결연에 따르는 의식과 관습’을 통괄하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의식’은 개인적인 차원의 관념이고 ‘관습’은 사회적 차원의 관념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덕 관념이란 이성과의 만남과 결연에 따르는 개인적인 의식이나 사회적인 관습 모두를 지칭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랄이라는 말로 대신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모랄이란 당시 사회의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되, 사회적인 풍습으로서의 성모랄이기 이전에 문학적 관습으로서의 성모랄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연구는 「이생규장전」에서 문제되고 있는 ‘성도덕관념’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도덕관념이 작품의 줄거리 전개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독서할 때, 「이생규장전」에 대한 새로운 작품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작품에 대한 일차적인 의미읽기의 방법은 『금오신화』의 남은 네 편의 소설 읽기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성도덕관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애정소설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게 하고, 성도덕관념의 시대적 변이를 통한 애정소설사를 가늠해 보는 길도 마련해 주리라 전망된다.

II. 서사구조의 특성과 성도덕 관념의 기능

「이생규장전」은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짜여져 있다. 홍건적의 난으로 여주인공 최랑이 죽기까지의 이야기를 전반부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후반부에 해당한다.²⁾ 전반부는 남녀주인공의 결연과정과 그

2) 문범두(1996:260) 참조.

에 따른 갈등을 그리고 있는 현실적인 사건이고, 후반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애정을 다룬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든 남녀주인공들의 애정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는 하나로 통합된다. 하나로 통합된 구조에서의 사건전개는, 애정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고전소설들이 그렇듯이,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작품에는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헤어짐’이 세 차례에 걸쳐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³⁾

송도의 낙타고 옆에 사는 이서생과 선죽리에 사는 최처녀는 꽃피는 봄날 최랑의 별당에서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서생의 부친이 아들을 울주에 있는 농장으로 보내어 두 사람을 떼어 놓는다. 상심 끝에 몸져 누운 딸을 위해, 최처녀의 부모가 매파를 이서생의 집에 보내어 간신히 혼사를 주선함으로써 이들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홍건적의 침입으로 이서생은 간신히 도망하였으나 최여인은 홍건적에게 잡혀 죽게 된다. 그러나, 도적이 물러가고 이서생이 집으로 돌아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죽은 최여인의 幻身이 돌아와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다가 몇 해 후에 최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자 이서생도 서너 달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통해 볼때, 『이생규장전』은 남녀주인공의 ‘만남과 헤어짐’이 되풀이되는 전형적인 애정소설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사건 전개과정에는 성도덕관념, 즉 성모랄이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주인공들의 첫 번째 만남은 이서생이 國學에 공부하러 가는 길에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우연히 최처녀의 거처를 엿보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최처녀가 먼저 이서생에 대한 연정을 담은 시를 읊고 이서생이 돌아오는 길에 화답하는 시를 담 안으로 던져 줌으로써,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서생은 부모 몰래 최처녀와 만난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최처녀의 적극적인 구애에 이끌려서 이날 저녁 별당 담장을 넘어가 최처녀의 별당 누

3) 김일렬(1983)은 남녀주인공의 반복적인 ‘만남과 헤어짐’을 이 작품의 구성원리로 파악하여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각에서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며 즐기다가 비로소 성적 결합에까지 도달한다. 사랑에 무한정 도취된 이서생은 이곳에서 사흘을 머문 이후로, 저녁마다 최처녀를 찾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남녀주인공들의 애정은 깊어졌다.

이와같이, 이들의 첫 번째 만남은 사회적인 공인 절차인 결혼을 거치지 않은 결합으로써 당대의 성도덕관념에 철저히 위배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의 密愛는 유교적인 성도덕관념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럼으로써, 이서생이 밀애의 탄로를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들의 애정관계는 지속되지 못하고 만다. 이서생의 부친은 아들의 밀애 행위를 눈치채고 이서생을 멀리 울주에 있는 농장으로 보내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애정의 표면적인 장애요인은 둘 사이를 강제로 떼어 놓으려는 이서생의 부친이다. 그러나 그 이면의 실질적인 장애요인은 윤리적인 규범인 성도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현의 참된 말씀을 실천하려 함인데, 요사이의 황혼에 집을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어찌된 까닭이나? 틀림없이 경박한 놈의 행실을 배워서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처녀를 엿보고 다니는 것이겠지? 이런 일이 만일 탄로되면 사람들은 모두 내가 자식 잘 못 가르쳤다고 책망할 것이요, 또 그 처녀도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반드시 내 행동 때문에 그의 가문이 누를 입게 될 것이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너는 한시 바빠 영남으로 내려가서 노복들의 농사 감독이나 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이생규장전』, 73쪽41)

이서생의 부친은 두 사람의 밀애행위가 성현의 가르침을 위배하고 가문을 더럽히는 행동이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천박함이라고 하면서 禁忌視하고 있다.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라는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정상적이며 사회적인 통념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생 부친의 입장인 셈이다. 이로 보아 이서생의 부친은 당시 사회의 성도덕 관념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이서생과 최랑의 분방한 결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당대의 성도덕관념인 것이다.

주인공들의 '두 번째 만남과 헤어짐'에서도 성도덕관념이 문제되고 있다. 최

4) 기본자료로는 『매월당문집』의 『금오신화』와 『한국한문소설전집』 7권의 『이생규장전』을 이용하되, 작품 원문의 인용은 『한국한문소설전집』 7권의 쪽수로 그 典據를 밝힌다. 그리고 작품의 번역은 이재호(1984.)의 역주본을 주로 참고하였다.

처녀는 이생을 사모하는 정이 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생에 대한 정조를 지키기 위해 열정적인 의지를 보인다. 이생이 찾아오지 않자, 최처녀는 저녁마다 화원에 나가 이서생을 기다리다가 이서생이 울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상심하여 앓아 눕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인용문에서와 같이 부모에게 위협에 가까운 간곡한 청을 하고 있다.

생각하옵건대,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혼기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시경의 주남편에도 있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것은 역경에 경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냇버들같은 연약한 자질로서 용색이 시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여 이웃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삼 덩굴과 여라 이끼가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이 벌써 위당의 처녀처럼 행세하였으니, 죄가 이미 가득 차서 수치가 가문에 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난꾸러기 도련님과 정을 통한 후에야 도련님께 대한 원망이 첩첩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약한 몸으로 괴로움을 참고 살아가려니 사모하는 정은 날로 깊어 가고 아픈 상처는 날로 더해 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원한 맺힌 귀신이 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 주신다면 남은 생명이거나 보전되었습시다만, 만약 저의 이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도련님과 저승에서 다시 만나 함께 만날지언정 절대로 다른 가문에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74쪽)

성모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변명이 필요하다. 사회통념으로서의 성도덕관념과 최처녀가 지향하는 性意識이 같지 않다. 사회적인 성도덕관념보다는 실질적인 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처녀의 이러한 노력과, 명분이나 문벌보다 오직 딸을 살리려는 최처녀 부모의 사랑에 힘 입어, 이들의 결합은 먼저 최씨 가문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리적 관념보다는 실질적인 사랑의 감정이 남녀간의 결합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하고 중시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성의식이 잘 드러난다.

최처녀의 부모는 이생의 집에 여러 차례 매과를 보내어, 두 사람의 결혼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서생의 부모를 간신히 설득시켜 결혼 승락을 받아낸다. 여기서 이생의 부모가 최씨 가문의 혼사 요청을 여러 번 거절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아 경제력·문벌·권력 등 두 가문의 불균형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혼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의식하는 그 자체는 사회통념으로서의 성풍속의 문제 즉, 성모랄의 문제이므로,⁶⁾ 이들의 두 번째 만

5)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임형택(1971)과 박일용(1993:89), 문범두(1996:262)를 참조할 것.

남에서도 성모랄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최처녀와 이서생은 이러한 사회통념으로서의 성모랄을 극복하고 양가 부모의 주선으로 혼례를 치른 후,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부부생활을 이어갔으며, 이서생이 科擧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올라 명성이 조정에 드러남으로써 가정의 행복이 절정에 다다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사적 현실 때문에 다시 헤어지게 된다. 즉, 홍건적의 침입으로 이서생은 간신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으나 최여인은 홍건적에게 잡히게 되어 피살됨으로써, 이들의 만남은 현실적으로 더이상 지속될 수 없는 절망적인 좌절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남녀주인공들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깨뜨려 놓는 것은 표면적으로 홍건적의 침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최여인의 성도덕관념이다. 최여인은 홍건적에게 사로잡혀 정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거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기 때문이다. 김일렬(1983)도 언급했듯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이념이 없었더라면 죽음에까지 이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남녀주인공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에 항상 성도덕관념이 문제되고 있었다. 사건 전개과정에 있어서 성도덕관념의 문제가 필연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표면적으로는 부모나 전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나 개인의 성모랄이 항상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의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남녀주인공들의 애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겉으로는 이생의 부친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성도덕관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는 홍건적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회 현실이 주인공들의 애정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역시 최여인의 성도덕관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후반부, 즉 '세 번째의 만남과 헤어짐'에서는 성모랄이 직접적인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이서생이 죽은 최여인의 환신과

6) 남녀의 결합에 있어서 제기되는 이러한 정신적인 기저의 문제는 결혼풍속에 해당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문제와 함께 성풍속 또는 성모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만나 부부의 연분을 몇년간 이어가다가 또 다시 헤어진다는 비현실적인 冥婚談 내지 人鬼交歡談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현실적인 세계를 통해 성도덕 관념을 직접적으로 문제삼기보다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이생과 최여인의 세 번째 만남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으로서 이승과 저승 그 어느 쪽과도 격리된⁷⁾ 중간지대에서의 삶이다. 홍건적의 난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 온 이서생이 부인 최여인의 幻身을 만나는 것은 환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신비체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 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는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 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완연히 한 바탕 꿈만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에 비쳐 들고, 복도 아래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차 가까스로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서 있었다. 서생은 아내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75쪽)

김시습의 소설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환상세계는 현실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가 마련된다. 이 작품의 환상세계를 현실세계와 분리해서 읽지 않고,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의 환상세계는 현실의 논리를 부정하는 방편으로 제시된 時空이라 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벌어진 사건이 현실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통제된다면, 환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질서에 의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 두 세계에 존재하는 논리는 정반대로 뒤집혀서 독자에게 전달된다. 환상세계의 삶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그 삶이 보여주는 질서야말로 이해할 만하고 진정한 것이라는 역설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세 번째

7) 죽은 최여인의 환신을 다시 만난 이서생은 “인간의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서 친척과 귀한 손의 길흉사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늘 아내와 함께 쇠귀를 지어 주고 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76쪽)고 했다.

의 만남과 헤어짐'은 비현실적인 환상이지만, 그 환상적 이야기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표현수단으로서 환상 아닌 환상이다. 즉,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세 번째의 만남과 헤어짐'이 단순한 귀신이야기로 전락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소설 발생 이전의 傳奇들과 변별성을 지닌다. 이처럼 「이생규장전」의 환상세계는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집념이 만들어낸 장치로서 현실적인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창작수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환상세계는 시공적 차원이 확대된 새로운 범주의 현실, 또 하나의 현실로서 기능할 뿐이다.⁸⁾

환상적 시공에서의 신비체험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공간을 영원한 공간으로 해방시켜 준다. 제한적인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환상적인 신비체험 속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가능한 만남이 가능하고, 그것을 저해하는 어떤 도덕관념 따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만남, 산 자와 죽은 자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혼의 사랑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생규장전」에서 설정되어 있는 환상세계에서의 사랑은 지고지순한 영혼의 사랑으로 의미화된다. 그 어떤 윤리규범의 제한도 따르지 않는 영혼의 사랑, 현실적인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이생규장전」에서 추구하고 있는 삶인 것이다.

그러나 환상적인 신비체험이 運數라고 표현된 운명적 장에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영속적인 세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결코 하나의 존재로 통합될 수 없으므로, 이생과 최여인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다시 헤어져야만 했다는 쪽으로 작품의 결말을 이끌어 갔던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가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틀을 발견할 수 있다. 김시습은 환상적인 時空 설정을 통하여 현실의 논리를 강하게 부정하고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한 가능의 세계일 수 없다는 인식, 즉 이상세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8) 강진옥(1985: 391~392)도 이 작품에서의 비현실세계는 “극복 불가능한 완강한 세계의 횡포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유한한 개인이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까닭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오히려 비현실적 현상이 작중 현실성을 획득한다”고 하면서, 그 비현실성 때문에 현실적인 만남이 더욱 강렬하게 부각된다고 한 바 있다.

그것이다. 김시습은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결코 초월주의 내지 이상주의의 늪에 빠져들 수 없었고, 現實主義的 世界觀을 떨쳐 버릴 수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적 한계에 의해 사랑이 완결되었다거나 패배로 끝나 버렸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생은 이승에서 영원히 떠난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결국 병이 나서 두서너 달만에 이 세상을 떠나지만, 이승과 저승의 이러한 한계는 오히려 『이생규장전』에서 다시 극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생도 결국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결말은, 현실적으로는 좌절이지만 새로운 만남과 사랑이 가능한 時空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생은 무료로 홀로 여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가고자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만남과 헤어짐이 되풀이 되는 작품구조가 그러한 의미부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이생규장전』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과정을 통해 윤리적 규범이 문제되지 않는 애정의 영원성’을 그 의미로 구축하고 있으며, 그 사건전개의 과정에는 도덕적인 문제 즉, 성도덕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도덕관념의 문제와 함께 엮어 놓은 애정추구의 구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족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만하다.

김시습은 『금오신화』 끝에 書甲集後라고 쓴 다음 두 편의 절구를 써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상사람들이 보지 못한 글”을 짓는다고 했고, 그 글은 “풍류스런 기이한 이야기”를 찾아낸다고 하였다. 이 말은 곧 ‘傳奇的인 형식의 小說’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題剪燈神話後』에 의하면, 이러한 문학형식에 대하여 김시습은 “말이 세상 교화에 관계되면 괴이해도 무방하고 사건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황탄해도 기쁘니라”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편만 읽어도 입을 열고 웃을 만하니 내 평생 몽친 가슴을 쓸어 없애 주리라”고 한 바 있다. 세상교화에 관련된 것이라면 괴이한 이야기라도 나쁠 것이 없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황탄한 사건이라도 마음을 즐겁게 하여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다. 『전등신화』를 읽고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과 그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금오신화』의 여러 소설들이 지닌 기이한 이야기와 황탄한 사건이 특정의 우의를 위한 표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훈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그 즐거움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소설을 바라보는 김시습의 관점이다.

따라서 「이생규장전」에서 문제되고 있는 애정의 영원성이나 성도덕관념의 문제가 반드시 寓意를 위한 문학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에 얽매어서 소설읽기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매월당 김시습이 모순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뇌로 점철된 방랑의 삶을 그토록 절박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애정 그 자체를 문제삼는 소설따위는 짓지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숙단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부친의 병고와 모친의 사별, 자신을 돌보아 주던 외할아버지와 외숙모의 죽음, 그리고 지속되지 못한 결혼생활,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한 방랑 등⁹⁾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김시습의 삶의 내면에 있어서 진정한 만남을 통한 사랑의 문제가 어쩌면 가장 절실한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삶에서 오는 고독과 소외, 그리고 좌절감이 특별히 애정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시습 자신의 불행했던 결혼생활이 이생과 최랑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공경하고, 부부간의 절의를 지키고 살면서, 임신양명하여 행복을 누리는 이상적인 가정생활¹⁰⁾을 꿈꾸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애정 추구의 구조가 지니고 있는 감동이나 교훈,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더라도, 이 작품을 창작해 낸 김시습의 의도는 어느 정도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I. 작품에 나타난 성도덕관념의 양상

이생과 최랑의 첫 만남은 당시의 사회적 규범 내지 관습이 되어 있는 유교적인 성도덕관념을 거부하면서 성취되고 있었다. 남녀가 혼인이라는 제도적

9) 김시습의 부친은 陰補로서 무반 하직의 벼슬을 받았으나 병으로 출사하지도 못하였고, 어릴 때는 외조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으나 15세 때 모친을 여의고 외가에 의탁하였으며, 3년이 못 되어 그를 돌보던 외숙모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0세 전에 장가를 들었으나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못했다. 정주동(1965), 정병욱(1968), 설중환(1983) 참조.

10) 이생이 최랑과 결혼한 후의 생활이 작품에 이와 같이 요약 서술되어 있다.(75쪽)

통과의례도 없이 만나서 육체적인 애정관계를 맺는 것은 유교적인 이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더구나 남녀의 애정결연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만남에 의한 성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유교적인 도덕과는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애정 관계를 맺는 과정이 여주인공의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求愛行爲에 의해 주도되는 것도 기존관념을 뒤엎어 버리는 행위 양식이다.

이생과 최랑의 첫 만남은 이생에게 최랑이 먼저 만남을 갈구하는 서정시 두 편을 읊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시에는 만남을 갈구하는 대담한 제안이 담겨 있다. 피꼴새의 정다움과 자신의 외로움을 대비시키면서 그리움을 더해 주는 봄바람이 원망스럽다고 하고, 당장이라도 담을 뛰어넘어 이서생과 만나고 싶다는 최랑의 충동적인 심리상태가 대담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¹¹⁾ 이에 비해 이서생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최처녀가 읊은 시를 듣고는 자기의 재주를 급히 시험하고자 안달이 났다”고 함으로써 처음에는 다소 무감각하다고 할 만큼 소극성을 보여준다. 국학에서 돌아 오는 길에서야 세 편의 시를 담장 안에 던져 넣는데, 양왕과 무산 선녀가 구름과 비가 되어 양대에서 만나 애정을 나누었다는 고사와 사마상여가 탁문군을 꺾어내어 도주했다는 고사를 끌어들여 충동적인 욕구를 비로소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만나기만을 고대한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¹²⁾

이서생의 답시를 받은 최처녀는 곧장 “도련님은 의심치 마옵소서. 황혼에 뽕기로 합시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즉시 던져 주는가 하면, 그날 밤 이서생의 월장을 돕기 위해 대광주리를 맨 그넛줄을 담 밖에 늘어뜨려 놓을 정도로 대담성과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서생이 담을 넘어 갔을 때에도 최처녀는

11) 사창에 홀로 앉아 수 놓기도 지쳤는데/활짝 핀 꽃뿔기에 피꼴새는 요란하네./살랑이는 봄바람을 부질없이 원망하며/가만히 바늘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네.// 저기 가는 저 도령은 어느 집 도령넙고/푸른 깃 넓은 띠가 버들 새로 비쳐오네./이 몸이 화신하여 대청 안의 제비되면/주렴을 사뿐 걸어 담장 위를 넘어가리.//(65~66쪽)

12) 무산 열두 봉에 첩첩이 싸인 안개/반쯤 들어난 봉우리는 붉고도 푸르려라./이 몸의 외로운 꿈 수고롭게 하지 마오/구름 되고 비가 되어 양대에서 만나보세.// 사마상여 본받아서 탁문군 꺾어내려니/마음 속 품은 생각 벌써 흠뻑 깊어지네./담머리에 꺾어 있는 요염한 저 도리(桃李)는/바람에 흩어지며 고운 봄을 맛아가네./애뿐 인연 되려는지 궂은 인연 되려는지/부질없는 이내 시름 하루가 삼추갈네/넘겨 보낸 시 한 수에 기억 이미 맺었나니/남교 어느 날에 고운 님 만나질까.//(66쪽)

이미 자리를 펴고 앉아 이서생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서생을 보자 말자 방긋 웃으며 “도리나무 엷힌 가지 꽃송이 탐스럽고/ 원앙새 배개 위엔 달빛도 곱구나”라는 아주 선정적인 글 두 구를 읊는다. 桃李가 일반적으로 여성의 은밀한 육체를 상징하고 원앙새 수 놓인 배개가 남녀간의 육체적 결합을 상징하는 것임을 상기해 본다면, 최처녀는 이서생과의 애정관계를 매우 관능적인 분위기로 몰고 갈 정도로 대담성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유교적인 성모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 규범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인 성도덕관념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는 남녀 주인공의 시각차가 다소 존재한다. 이생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애정적 결합에 대한 두려움이나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최랑은 당시의 사회적인 성도덕관념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생이 “이 다음에 어쩌다가 봄소식 샌다면/ 무정한 비바람에 또한 가련하리라.”라는 시를 읊는 것에 대해 최랑이 다음과 같이 웅대하는 것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도련님. 저는 애당초 도련님을 끝내 남편으로 모셔 오래도록 즐겁게 지내려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오나 조금도 격정함이 없는데, 대장부의 의기를 가지고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뒷날에 규중의 비밀이 누설되어 꾸지람을 듣게 되더라도 저 혼자 책임을 지겠습니다.(67쪽)

여기에서 소극적인 남성과 적극적인 여성으로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애정 구현 양상¹³⁾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의 性意識도 살필 수 있다. 즉, 혼인이라는

13) 애정 구현에 있어서 남녀주인공들의 이러한 성격은 최랑과의 밀애행위를 눈치챈 부친의 엄명으로 이생이 울주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도 잘 드러난다. 이 때 이생은 최랑과의 애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부친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기만 하는 우유부단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에 비해 최랑은 저녁마다 이서생을 기다리다가 두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시비를 시켜 이서생에 대한 소식을 알아오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서생이 울주로 내려간 지 두 달이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상심하여 병까지 들었으며, 부모님이 그 사연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협박에 가까운 요구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내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남녀주인공의 성격에 대해서는 최숙인(1980)과 설중환(1983) 등에

제도적인 승인을 얻지 않고서 맺게 되는 자신들의 애정 결합이 당시의 사회적 성모랄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는 있는 가운데, 이생은 사회적 관습의 파기를 두려워하고 최랑은 이러한 관습에 추종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당시의 사회적 성모랄을 위배한다는 것 때문에 이생은 불안해 하고 있고, 최랑은 이생을 안심시키면서 “도련님은 저를 따라 오셔서 두터운 정의를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며 육체적인 결합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이들의 성의식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의 남녀주인공들은 첫 만남을 바로 육체적인 결합으로까지 이끌어가고 있다. 당시의 성모랄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으나 혼전의 육체관계에 대한 죄의식이나 갈등같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지니고 있을 뿐, 혼전의 성적 결합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갈등이나 죄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애정 성취가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육체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몇 수의 서정시가 애정을 갈구하는 서로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대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서로에 대한 사전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애정 성취는 상당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애의 과정을 비록 길게 묘사하고는 있지만, 남녀주인공들이 만나서 성적 결합을 갖기까지의 시간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적으로 그만큼 짧은다는 말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정신적인 연정의 교환 기간을 거친 후 비로소 육체적인 결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곧 육체적인 결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볼 때, 남녀의 만남 자체를 성적인 결합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성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즉흥적으로 성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애정을 정신과 육체, 마음과 몸으로 二分化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전제로 하는 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성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남녀가 만나서 마음이 충동질하는 대로 즉흥적인 육체 관

의해 거듭된 논의가 있었지만, 본고의 논의 전개를 위해서는 구애행위를 중심으로 이러한 성격을 새롭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남녀주인공들의 성의식에 있어서 婚前의 純潔觀은 중시되지 않았고 쉽게 무시될 수도 있다고 여겼다. 작품에 그려져 있는 성도덕관념의 이러한 양상은 초기의 애정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¹⁴⁾

그런데, 혼전의 순결관에 대한 의식과는 달리, 정조관은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생이 말 한마디 없이 울주로 내려간 사실을 알았을 때 최랑은 이생에 대한 사모의 정이 깊어 앓아 누운 채 자신의 부모에게 다른 집안에 시집 갈 바에야 죽겠다고 한 것은 이생에 대한 사랑의 강열함을 말해주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不更二夫의 貞操觀을 중시하는 節義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정조관이라는 도덕 규범을 중시하고자 하는 의식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최랑은 홍건적에게 정조를 유린 당하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건적은 단순히 육체적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겠으나, 최랑으로서는 그런 차원으로 끝낼 수 없었다. 홍건적에게 겁탈 당한다는 것은 최랑에게 있어서 정조의 훼손이며, 도덕적 이념의 파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¹⁵⁾ 그렇기 때문에 홍건적에게 진흙창에서 몸뚱이를 찢기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최여인은 정조를 잃지 않았다. 천성이 그렇게 한 것이지 사람의 마음으로는 차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런 상황¹⁶⁾에서도 최랑은 도덕적 이념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생규장전」에서 불경이부의 정조관이라는 도덕 규범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철저히 고수되고 있고, 혼전의 순결관이라는 도덕 규범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무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최랑과 이생이 생각하는 성의식을 알 수 있고, 작품에 형상화되어 있는 이러한 성도덕관념의 문제는 “김시습의 철학사상에 있어 가치론적 관심(윤리관)의 표명”¹⁷⁾으로 이해될 수 있다.

14) 여세주(1994:181) 참조.

15) 죽은 최여인이 나타나 이생에게 하는 말 가운데, 쇠잔한 몸이 홍건적의 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義重命輕 幸殘軀之免辱, 67쪽), 여기서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16)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할 당시의 고통스런 상황은 죽은 최여인이 이생을 만나 지난 일을 술회하는 말 가운데 드러나 있다. (終不委身於豹虎 自取礫肉於泥沙 固天性之自然 非人情之可忍, 76쪽)

IV. 성도덕관념을 통해 본 작가의 의식세계

「이생규장전」에서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애정의 영원성이고, 그것은 성도덕관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김시습은 성도덕관념과 관련한 애정의 형상화에 왜 이토록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가? 이 작품에서 성도덕관념의 문제와 함께 얹어 놓은 애정추구의 구조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寓意하기 위한 문학적 의장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를 문제삼으면서 여기에 작가의 의식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작가의 창작의도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길인지도 모른다.

작가의 의식세계와 작품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창작동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생규장전」에서 문제되고 있는 남녀간의 애정이 어떤 특정한 우의일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출발하고 있다. 작가 김시습과 세종의 특별한 인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작품의 우의성을 유추하고자 한 연구, 그리고 端宗遜位 사건에 대한 충신들의 반응 자세와 관련하여 작품의 우의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강진옥(1985:404~408)에 이하면 『금오산화』의 여러 작품은 만남의 구조를 통해 세종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와의 만남을 상징한 것이라 해석되기도 했고, 안창수(1994:104~110)에 의해 이 작품들은 일정한 논리의 순차에 따라 세종과의 만남을 반추하고 이 만남이 깨어지게 되면서 겪게 되었던 작가 의식의 변모과정을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설중환(1983:139~153)은 「이생규장전」을 해석하면서 최랑은 적극적인 절의를 지닌 이상의 작가요, 이생은 소극적인 절의를 지닌 현실의 작가로서, 死六臣의 적극적 절의를 추구하는 작가의 무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해석했으며, 설성경(1986:88)은 이 작품이 절의를 위한 최랑의 죽음과, 부모의 유골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孝를 통하여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의 죽음과 그들의 왕에 대한 忠을 우의화한 작품으로 해석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혜숙(1987)은 최랑은 단종, 최랑의 부는 세종, 이생은 김시습 자신, 홍건적의 난은

17) 김일렬(1983:241~242)은, 최여인이 정조라는 도덕적 이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불행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면서, 도덕적 이념의 수호에 작가의 중요한 관심이 스며있다고도 하였다.

세조의 왕위찬탈행위를 우의한 것이라 하기도 하였다.

작품의 내용을 작가의 삶이나 의식세계와 대응시켜 置換한 이런 해석들은, 김시습의 삶이나 그 의식세계와 견주어 볼 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가의 삶에 대한 선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미리 결정해 놓은 어떤 사실에, 작품을 대응시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추과정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 형상화되어 있는 사랑을 굳이 세종에 대한 작가의 사랑으로 보거나, 주인공들의 소극적 성격과 적극적 성격이사육신의 적극성과 생육신의 소극성을 상징한다는 근거를 현재로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창작 동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작품에서 거론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자체를 확대 해석하여 작가의 문제의식을 살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입장에서 「이생규장전」은 작가의 사회적·윤리적 관심을 표현한 작품으로 보고자 하는 김일렬(1976, 1983)의 논의는 작품의 실상에 보다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이생규장전」은 애정추구의 구조 속에 성도덕관념의 문제를 얹어놓고 있다. 그러니, 성도덕관념의 문제에서부터 작가의 의식세계를 찾아보는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생과 최랑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회관습적인 성도덕관념은 쉽게 무시되고 있었다. 사랑의 진실에 떠밀려 사회적인 통념으로서의 성도덕관념은 여지없이 파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혼전의 충동적 육체관계나 여성의 적극적인 애정구현 등은 유교사회 일반의 관습이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한 이러한 행위들은 남녀주인공들이 추구하는 애정의 강도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교적인 성도덕관념에 대한 거부행위로서의 의미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시습이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에는 유교적 성도덕관념이 이미 형성·정착되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¹⁸⁾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정절이데올로기가 항시 무시되고 있지는 않았다. 흥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당시의 성도덕관념이 오히려

18) 이옥경(1985:33~63)은 정절이데올로기가 세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정착되었다고 하면서, 고려말과 조선초를 그 첫 단계로, 성종대를 그 둘째 단계로, 16세기 이후를 그 셋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철저히 고수되고 있었다. 최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절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정조를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랑을 위해 혼전순결관이라는 유교적 규범은 쉽게 무시되고, 남편에 대한 절의를 위해 불경이부의 정조관이라고 하는 유교적 규범은 목숨보다 더 중시되고 있었다. 윤리규범에 맞서 사랑의 행복을 추구했던 주인공이 윤리규범을 고수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다.¹⁹⁾ 끝없는 애정과 절의가 강조되는 가운데, 성도덕관념, 즉 윤리규범이 작품의 한 부분에서는 쉽게 무시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으로 수호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성도덕의 문제는 유교적 도덕이념에 대한 김시습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혼전의 순결관과 불경이부의 정조관은 각기 다른 것이지만, 모두가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성모랄이요, 윤리적인 규범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같은 하나이다. 둘 다 당대의 유교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규범이지만, 경우에 따라 무시될 수도 있고, 목숨보다 중시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성도덕관념, 즉 윤리적 규범이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현실 논리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²⁰⁾ 그리고 이러한 현실 논리를 내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현실인 신비체험의 세계를 그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윤리적 규범이 문제되지 않으면서 애정욕구의 충족과 절의의 고수가 가능한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공간에서의 삶을 거듭 제시하면서도 그것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작가가 이상적인 세계를 끝없이 추구하면서도 그것의 현실적 한계 또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해석될 직하다.

김시습의 소설은 그의 철학적 고뇌를 문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²¹⁾이라 한다면, 「이생규장전」이 지닌 이러한 의미체계는 김시습의 삶과 견주어 볼 때

19) 작품의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김일렬(1983:241)과 안창수(1994:106)도 주목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펼치지 않았다.

20) 혼전의 순결관이나 불경이부의 정조관과 같은 본원적인 儒家倫理觀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의 논리에 따라 그것이 쉽게 무시될 수도 있고 철저히 수호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理氣論에 대한 작가의 철학적 입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본고의 논지상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21) 조동일(1977:275)

더욱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사랑과 절의를 통해 자신이 추구해 온 儒家의 理想에 대한 집요한 애착을 표현하면서, 성도덕관념의 문제를 통해 자신의 현실적 삶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금오신화』의 여러 소설들은 김시습의 금오산 隱居期(31세~36세, 세조11년~16년)에 창작된²²⁾ 작품이다. 금오산에 은거할 당시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찬탈 이후 10여 년의 방랑생활을 끝내고 스스로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현실참여를 모색하던 때였다.²³⁾ 이 당시 김시습의 현실대응태도는 세조의 왕위찬탈 직후와는 상당히 달라졌으리라 짐작된다. 설중환(1989:47)도, 김시습의 이 당시 심리상태에 대하여 “지사로서 살려니 공명을 이룰 수 없고, 대장부의 기개를 펴자니 절의를 지킬 수 없는 양면의 감정이 미묘하게 교차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세조의 왕위찬탈에 맞서 유가적 윤리 규범을 존중하기 위해 현실을 등지고 긴 방랑의 길을 떠났던 김시습이, 세조의 治績을 찬양하기도 하였고 세조의 불경언해사업을 도왔으며 금오산에 들어간 그 해에는 세조의 부름을 받고 원각사 낙성회에 참석한 사실²⁴⁾로 미루어 보아도 김시습의 현실대응태도가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조의 왕위 찬탈 직후에는 김시습 자신의 유가적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확신하였겠으나, 금오산 은둔기인 이 시기에는 그것을 더 이상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임에 틀림없다. 김시습은 이 당시 자신의 이데올로기 즉, 그토록 철저히 고수하려고 했던 유가적 윤리규범이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 논리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자신의 유가적 삶에 대한 이러한 입장 정리가, 바로 『이생규장전』에서는 성모랄이라는 윤리적 규범의 문제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세계관이 이와 같이 달라지면서, 김시습은 세조의 치적을 찬양하고 불경언해사업을 돕고 세조의 부름으로 원각사 낙성회에 참가하며 현실과 화합하려

22) 김시습이 금오산에 들어가 『금오신화』의 여러 소설들을 썼다는 기록은 『매월당집』, 『대동운부군옥』, 『용천담적기』 등에 전해지고 있다. 정병욱(1969)과 정주동(1965)은 『금오신화』를 김시습의 금오산 隱居期인 31세에서 36세 사이에 이루어진 작품집이라고 보고 있다.

23) 설중환(1989:45~48) 참조.

24) 설중환(1989:44~45) 참조.

고 하였지만, 자신이 애절하게 추구하고자 했던 유가적 삶의 이상을 마침내 성취한 것은 아니다. 김시습의 본마음이 유가적 입신양명에 있었다면, 유가로서가 아니라 승려로서 조정의 소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었다.²⁵⁾ 그렇기에 김시습은 다시 금오산으로 돌아왔고, 유가로서의 입신양명이라는 이상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실을 등지고 10여 년이나 바깥처럼 떠돌아 다녔어도 끝내 떨쳐 버릴 수 없었던 유가적 삶에 대한 집착이 영원한 사랑과 절의를 강조하는 애정추구의 구조로 나타나고 그 한계 인식을 통한 삶의 태도변화가 성도덕관념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작가의 이상추구의 의지와 그 좌절이 가져다 주는 갈등이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김시습은 떨쳐 버릴 수 없었던 유가적 이념에 대한 애착과 그것의 현실적 좌절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이생규장전』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이생규장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작품의 우의성을 찾는 데만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각 작품의 言表에 내재된 일차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작품의 진실을 오히려 왜곡해 버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반성을 전제로 『이생규장전』이 애정소설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 일차적 의미 읽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 과정에서 이 작품에는 필연적으로 性道德觀念의 문제가 대두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생규장전』에서 문제되고 있는 ‘성도덕관념’이 작품의 줄거리 전개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품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주인공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두 차례나 반복되는 전반부에서 성도덕관념의 문제가 사건 전개과정에 항상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랑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표면적으로는 부모나 전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이

25) 설중환(1989:46) 참조.

면에는 이생의 부모로 대변되는 사회나 최여인으로 대변되는 개인의 성모랄이 항상 문제되고 있다. 그런데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일종의 신비체험인 환상 세계의 제시를 통해 성도덕관념을 직접적으로 문제삼기보다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이생규장전」은 애정추구의 구조를 통해 윤리적 규범이 문제되지 않는 애정의 영원성'을 그 의미로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김시습의 삶의 내면에 비추어 볼 때, 애정추구의 구조를 통한 사랑의 영원성 구현이 어쩌면 가장 절실한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도덕관념의 문제와 함께 엮어 놓은 애정추구의 구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작가의 의도는 어느정도 발현되었다고 하겠다.

둘째, 애정 구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이며, 그들의 애정 추구는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육체적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혼전의 성적 결합에 대한 죄의식이나 갈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의 만남이 곧 육체적 결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즉흥적으로 육체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라고 인식하는 성모랄 의식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애정을 정신과 육체로 이분화하지 않았으며, 혼전의 순결관은 쉽게 무시된다. 이에 반해, 이생이 아니면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다고 하는 최처녀의 간절한 하소연이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최처녀의 절의를 통해 볼 때, 불경이부의 정조관은 그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다. 결국, 사랑을 위해 혼전순결관이라는 유교적 규범은 쉽게 무시되고, 남편에 대한 절의를 위해 정조관이라는 유교적 규범은 목숨보다 더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 작품에서 혼전의 순결관이나 불경이부의 정조관과 같은 본원적인 儒家倫理觀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쉽게 무시될 수도 있고 철저히 수호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윤리적 규범이 현실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현실 논리를 긍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논리를 긍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현실인 신비체험의 세계를 그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윤리적 규범이 문제되지 않으면서 애정욕구의 충족과 절의의 고수가 가능한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이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공간에서의 삶을 거듭 제시하면서도 그것의 한계

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작가가 이상적인 세계를 끝없이 추구하면서도 그것의 현실적 한계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생규장전』이 지닌 이러한 의미체계는, 사랑과 절의를 통해 자신이 추구해 온 儒家의 理想에 대한 집요한 애착을 표현하면서, 성도덕관념의 문제를 통해 유교적 윤리규범과 현실적인 삶에 대한 김시습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실을 등진 10여 년의 방랑에도 끝내 떨쳐 버릴 수 없었던 유가로서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집착이 영원한 사랑과 절의를 강조하는 애정 추구의 구조로 나타나고, 그 한계 인식을 통한 삶의 태도변화가 성도덕관념의 문제로 제시되고,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이상추구의 의지와 그 좌절이 가저다 주는 갈등이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생규장전』은 애정추구의 구조 속에 성도덕관념을 문제삼음으로써, 유교적 도덕이념에 대한 작가 김시습의 관심과 입장을 표명해 놓은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작품을 해석해 보니, 『이생규장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다.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남은 네 편의 소설도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기본자료>

- 『금오신화』(매월당문집 영인본). 『한국한문학』(윤영옥 편, 1980). 학문사.
 『이생규장전』. 『한국한문소설전집』 7권(임명덕 편, 1986). 중경문화학원.
 『금오신화』. 『을유문고』 81(이재호 역, 1984). 을유문화사. <논저>
 강진옥(1985). “『금오신화』와 만남의 문제”. 고전소설연구의 방향. 한국고전 문학연구회 편. 새문사.
 김안로(1522). 『용천담적기』. 『국역 대동야승 III』. 민족문화추진회. 1986중판. 김용덕(1983). “이생규장전 연구”. 『한국어문학 탐구』. 민족문화사.
 김일렬(1983). “『금오신화』고찰”. 『한국고전소설연구』. 이상택·성현경 편. 서

울:새문사.

김혜숙(1987). “이생규장전, 그 우의의 내막”. 『울산어문논집』, 제3집. 울산
대 국문과.

문범두(1996). “매월당의 유가적 이념과 『금오신화』”. 『영남어문학』 제30집.
영남어문학회.

박일용(1993).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설성경(1986). “이생규장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서울:
새문사.

설중환(1983). 『금오신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안창수(1994). “금오신화의 의미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제26집. 영
남어문학회.

여세주(1994). “『주생전』의 서사구조와 성모랄”. 『영남어문학』 제25집. 영남어
문학회.

이옥경(1985). 조선시대 정절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방식에 관한 연
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임형택(1971).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제13집. 서울
대 국문과.

정병욱(1974). “김시습과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 계명대출판부.

정주동(1965). 『매월당 김시습연구』, 신아사.

조동일(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최숙인(1980). “『이생규장전』연구”. 『이화어문논집』 제3집. 이화어문학회.